

국제노동기구와 농업인 안전 챙긴다

농진청, 협약 체결해 '농업 분야의 인간공학 체크포인트' 발간 현장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안전 지침 100가지 실천 방안 담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농업 분야의 인간공학 체크포인트' 한국 공식 번역서를 발간했다. '농업 분야의 인간공학 체크포인트'는 ILO가 세계인간공학회와 공동 발간한 책자로, 위험한 작업 환경에 놓인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안전 지침 100가지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4월 ILO와 출판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 안전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농업 분야의 인간공학 체크포인트' 한국어판을 출판했다. ILO는 이 책자의 한국어 저작권을 농촌진흥청에 5년간 부여했으며, 번역과 인쇄·출판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무료 보급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안전 관리자와 영농 지도자들이 이 책자를 참고하면 작업장에 적합한 30~50여 개의 점검표를 선별한 후 각각의 점검표에 포함된 체크포인트를 풀라 소책자로 제작해 활용할 수 있다. 각각의 체크포인트는 낱장 인쇄물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면은 설명, 한 면은 그림 2면으로 구성돼 있어 교육 훈련 교재로도 쓸 수 있다. 아울러, 이 책자는 농작업 관련 사고

와 질병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는 등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농촌진흥청은 번역서를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 농업인안전365(farmer.rda.go.kr) 등에 게시했다. 이경숙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ILO와의 협력을 통해 농업 및 농촌 환경에서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여러 나라의 개선사례를 참고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해 국내외 농업인 안전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공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2030 고객 대상 여름맞이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 '펀·쿨·스' 내달 31일까지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30 고객을 대상으로 '여름맞이 2030 펀(Fun)·쿨(Cool)·스(Strong)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해당 기간 동안 당행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고 NH오븐뱅킹에서 타행계좌를 등록한 뒤 인터넷·스마트뱅킹 또는 윌뱅크에서 응모한 고객 중 1,5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벤트 응모 고객 중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고객을 추가로 추첨해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에어팟 프로, 편이점 모바일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또한, 농협은행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이벤트 페이지를 공유(리그램) 및 필수 해쉬태그(#농협은행팬클럽 또는 #농협은행팬클럽)와 함께 댓글을 남기는 고객 중 30명을 추첨해 농협협상 한산인 홍삼정성티를 제공한다. 당첨자는 9월 중 농협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나 가까운 영업점,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공유경제 플랫폼 BI 네이밍 슬로건 공모전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과 전북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에 활용하기 위한 BI·네이밍 및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북도는 도민의 편의 증진과 사회적 가치 향상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유류자원을 공유하는 온라인 거래기반 통합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북형 공유경제 플랫폼의 핵심가치와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름과 BI, 슬로건을 선별한다. 유류자원의 공유로 가치를 높여주는 공유경제를 표현하는 플랫폼의 정체성과 의미를 표현하면 된다. 공유경제에 관심이 있는 전북도 기업 또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공유경제 전문 BI 및 네이밍 부문과 공유경제 플랫폼 슬로건 부문으로 부문별 각 1점씩 중복 응모해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8월 6일까지이며 이메일 접수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출품작은 창의성, 희소성,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총 11개의 입상작을 선정해 포상한다. 수상한 작품들은 고도화 작업을 통해 플랫폼 내 디자인에 반영하고 공유경제 인증마크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전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ta.kr) 및 전화(063-711-2076)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는 28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 기업대표들과 함께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범기 정무부지사, 오인섭 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장, 도내 기업대표 등 13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여파 기업 위기 4차산업 기술로 극복'

전북도, 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 등과 간담회 열어

전북도는 28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 기업대표들과 함께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범기 정무부지사, 오인섭 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장, 도내 기업대표 등 1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경영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전북도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 연합회는 코로나 19 위기를 4차산업 관련 기술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융합회는 스마트공장 구축, 로봇 도입, 전문인력 양성과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관련한 전북도 지원 등에 대해 건의했다. 도는 올해 164억 원을 투입,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부담을 35%로 감소 시켰고 앞으로도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발굴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소상공인 미디어 콘텐츠 확산 | 전북중기청-전북콘진, 협약 체결

전북중기청, 정책 수립·추진 콘텐츠 제작 시 정보 소재 제공

전북콘진, 프로그램 참여자들 소상공 소재 콘텐츠 제작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원장 최용석)과 28일 전북중기청 중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미디어 콘텐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전북중기청과 전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 협력해 도내 소상공인을 소재로 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전북중기청은 소상공인 미디어 콘텐츠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추진, 관리하며 콘텐츠 제작 시 백년가계, 백년소공인 등 전북중기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정보를 소재로 제공하고 우수 결과물을 중소벤처기업부 SNS, 유튜브채널 등에 게시·홍보한다. 전북문화콘텐츠진흥원은 '전북도콘텐츠코리아랩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J-Creator'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소상공인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전문가 교육과 스튜디오, 촬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28일 전북중기청 중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미디어 콘텐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비 등 콘텐츠 창작 인프라를 무료로 지원하며, 우수 결과물 등을 전북문화콘텐츠진흥원 SNS 등에 홍보할 예정이다.

전북중기청 안남우 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해 고령 독거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증명된 만큼 이번 업무협약이 우리지역 소상공인들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다방면으로 협업체 우 리지역의 특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 고령·독거 수급자에 가스안전 서비스 제공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취약계층의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독거 수급자 800가구에 가스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설치 제공되는 서비스는 '타이머'라는 가스안전기기로 설정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 가스센지 파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북도 내 거주하는 독거 고령 수급자 800가구이며, 사업비는 공단과 가스안전공사가 1:1 매칭사업을 통해 총 4,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수소트럭 콘셉트카 '2020 퓨처 모빌리티상'

현대차 'HDC-6 넥톤' 상용차 부문 대상 1인 교통수단 부문에 'e-스쿠터'가 1위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지속 혁신 인정받아

현대차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지속적인 혁신을 인정받았다. 28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이날 대전 카이스트 학술문화관에서 현대차인사담당 이상엽 전무, 현대상용디자인실 실장 하학수 상무, 로보틱스랩 현동진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 퓨처 모빌리티 상' 상용차, 1인 교통수단 부문 대상을 받았다.

▲수소전용 대형트럭 콘셉트카 HDC-6 넥톤 ▲빌트인 e-스쿠터로 2관왕을 달성한 현대차는 미래 사회에 유용한 교통 기술, 혁신적 서비스를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2019 북미 상용 전시회'에서 첫선을 보인 수소전용 대형트럭 콘셉트카 HDC-6 넥톤은 20세기 초기 기술의 발전을 상징하는 기관차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콘셉트카로, 미래 친환경 상용

차 시대로의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현대차의 의지가 담겨있다. 무공해 친환경 상용차 수요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몰류 배수에 접목한 최초의 콘셉트카란 점이 심사위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현대차인사담당 이상엽 전무는 "넥톤은 차세대 수소전기차의 위상과 기술을 보여주는 앰버서더(ambassador)와 같은 콘셉트카다. 현대차가 글로벌 수소 모빌리티 사업의 리더로서 제시하는 비전과 고객가치를 미래지향적 디자인에 담았다"고 말했다. 현대차 로보틱스랩 현동진 실장은 "빌트인 e-스쿠터는 휴대성과 편의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제품으로 개인 소유형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주=이중복 기자

6월 전북 수출 4억690만 달러

코로나19 피해 회복중인 중국 등으로의 수출 회복 중 무형 전북본부장 "올해 수출액 전망치 53억 달러로 하향"

전북도의 올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6.0% 감소한 4억69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반적인 수출부진세는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피해에서 회복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일)와 전주세관(세관장 진운용)이 28일 발표한 2020년 6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4억 690만 달러, 수입은 3억8,569만 달러로 집계됐다.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27억 4,671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9% 감소했고, 수입은 24억7,465만 달러로 5.4% 감소했다.

6월 주력 수출품목이 대부분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다. 유일하게 종이제품(\$1,655만, 3.3%)만 전년 대비 증가했고, 자동차(\$3,516만, -26.0%), 합성수지(\$2,970만, -12.8%), 정밀화학원료(\$2,922만, -44.0%) 등 다른 10대 수출품목이 모두 감소했다. 20대 수출품목중에는 감소품목보다 증가품목이 더 많았는데, 농산품(\$1,156만, 48.7%), 공기조절기/냉난방기(\$1,124만, 530.1%), 인조섬유/장섬유사(\$918만, 13.1%), 철강관(\$623만, 53.6%), 식물성물질(\$614만, 155.2%),

전기부품(\$486만, 21.8%) 등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9,087만, -13.1%), 미국(\$6,110만, -16.8%), 베트남(\$3,127만, -4.8%), 일본(\$2억5,698만, -26.1%) 등 5대 수출상대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다만 지난 달 실적(중국 -34.7%, 미국 -40.4%, 베트남 -31.3%, 일본 -39.9%) 보다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개 수출상대국 중 러시아(\$1,184만, 54.7%), 폴란드(\$1,077만, 93.0%), 헝가리(\$657만, 36.5%), 필리핀(\$479만, 69.2%), 오만(\$453만, 547.6%)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이강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전북의 주력 수출품목 다수가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산업에 속해 수출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본부장은 "경제활동 정상화에 들어간 중국,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회복하고 있고, 백신개발에 진전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거나 미국, 일본 등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감염이 재확산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수출개선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올해 수출액 전망치를 67억 달러에서 53억 달러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 명품 복숭아 큰잔치,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운영

명품전주복숭아추진위원회(위원장 전주농협 임인규)는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전주시민에게 당도 높은 복숭아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자 제22회 전주 명품 복숭아 큰잔치를 29~30일 양일간 개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각종 부대행사들을 취소하고 진행되는 이번 행사

는 덕진구 팔복동에 위치한 아름다운 컨벤션웨딩홀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직거래 판매만 운영된다. 이용객들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추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 농가들의 판로개척 및 전주 복숭아의 홍보를 위해 민간의 준비를 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